

## 조기 진단의 중요성

한국 사람에게서는 B형 간염이 가장 위험한 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B형 간염 감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검사를 받자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혈액검사를 받으십시오.

#### B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만성적 B형 간염에 걸렸는지(또는 B형 간염 보균 여부) 알 수 있습니다.

#### B형 간염 표면 항체 (anti-HBs):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표면 항원만이 만성적 B형 간염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 백신을 맞자

만약 B형 간염 표면 항원과 항체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당신의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백신은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맞는 주사이며, 평생 유효합니다.

이 백신은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간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암 예방 백신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뭉치자.



옥색 제이드 리본(Jade Ribbon)은 한자 人(사람 인)같이 접혀 있습니다. 제이드 리본은 세계 곳곳에서 B형 간염과 간암을 싸우는 사람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liver.stanford.ed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자리한 아시아 간 센터  
ASIAN LIVER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490 S. CALIFORNIA AVE, SUITE 300  
PALO ALTO, CA 94306  
전화번호: 1-888-311-3331  
팩스: (650) 566-8863



KOREAN EDITION  
© 2011 ASIAN LIVER CENTER

# HBV를 알자



한국인이려면 알아야 할 B형  
간염과 간암에 관한 상식



## B형 간염에 관한 침묵 깨기

- »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간을 가장 흔히 감염하는 바이러스이며 간암 또는 간부전을 유발해서 죽음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 » 한국인 12명 중에 1명은 만성적 B형 간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 대부분의 B형 간염 보균자는 자신의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 4명의 만성적 B형 감염자 중 1명은 결국 간암 또는 간부전으로 목숨을 잃지만, 지속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로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B형 간염에 이미 감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한 병입니다. 혈액검사 또한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복부 통증 또는 황달(진한 오줌과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현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 HIV와 유사한 전염

**1. 산모에서 신생아에게로의 수직감염**  
한국인들의 경우 B형 간염은 흔히 만성적 B형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분만 중에 전염됩니다.

**2. 혈액을 통한 감염**  
B형 간염은 감염된 혈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상처와 상처의 접촉  
 » 면도기와 칫솔의 공유  
 » 문신기구, 피어싱, 또는 마약 주사를 위한 바늘의 재사용  
 » 의료 주사, 바늘 또는 침의 재사용

**3. 성관계를 통한 감염**  
B형 간염은 B형 간염 감염자와 성관계를 보호 없이 가졌을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B형 간염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전염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B형 간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 음식이나 물의 공유  
 » 같은 수저나 컵의 사용  
 » 일상적인 접촉  
 » 기침 또는 재채기  
 » 포옹 또는 키스  
 » 모유 수유

B형 간염 감염자를 차별 대우하거나 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 B형 간염에 감염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 검사를 받자

현재 건강해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	검사	검사 목적
매 6개월	ALT 혈액 검사	간 손상
	AFP 혈액 검사	간암
매년*	초음파	간암

\* 간경변 또는 간암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매 6개월마다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간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든 B형 간염 감염자가 치료를 받아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ALT 수치가 높으면, 간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적절한 치료로 간암과 간부전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FDA승인을 받은 치료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암 치료를 위한 화학 요법을 시작할 경우, B형 간염 치료를 병행해서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또는 간부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A형 간염 백신 맞기

### » 술 안 마시기

### »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가족들과 배우자가 B형 간염 테스트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 B형 간염 백신을 맞도록 하십시오.

만약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B형 간염 백신 주사와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HBIG)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두개의 백신 주사를 맞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95% 이상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